

광주가 들썩...세계 최고 거리극 만난다

‘2018 ACC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28일~30일 문화전당 일원서 열려
국내외 5개국 14개팀 40회 공연

세계 최고의 거리극을 만난다. 예술은 우리의 현실을 투영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 열린 공간에서 펼쳐지는 거리극은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18 ACC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이 후원하는 이번 프린지인터내셔널은 국내외 5개국 14개 팀이 약 40회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단순히 관람하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해외초청작 4편

▲제네릭 바피의 ‘야영’ (프랑스, 28-29일 밤 9시)
파랑계 분장을 한 기이한 모습의 배우들이 거친 록 음악에 맞춰 우리의 도시를 찾아온다. 사나운 개가 불을 뿜으며 야영을 떠나는 그들을 뒤에서 불기도 하고 앞에서 이끌기도 한다. 그들의 강렬한 행렬은 언뜻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흥을 부추기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마침내 이들 앞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막아선다. 그들은 이 피라미드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크로주의 ‘바퀴로 만든 집’ (영국, 28일 오후 6시, 29일 오후 4시·6시40분, 30일 오후 6시40분)

내부가 드러나 있는 ‘바퀴로 만든 집’이 관객과 함께 이동하면서 서커스를 펼쳐 보인다. 이들의 서커스는 매력적이지만 그 배경은 인류의 종말 이후를 암시하듯 암울하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날카로운 눈과 날렵한 손 그리고 무엇보다 우정이 필요하다. 이 유랑자들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걸으면서 어느 곳으로도 데려가지 않는 길을 (nowhere) 떠나보자.

▲서커스 모사의 ‘내일은 끝’ (프랑스, 28일 오후 8시, 29-30일 오후 4시·7시)

세상은 어느 순간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남자가 널빤지를 가운데 놓고 서로 만나고 알아가고 마침내 서로 신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내던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안정된 평형을 이루기 위한 한계를 탐구한다.

▲극단 KTO의 ‘시간의 향기’ (폴란드, 29-30일 오후 8시)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가혹했어도 돌아켜보면 미소가 지어진다. ‘시간의 향기’는 향기로운 추억이라고 불려도 좋겠다. 성장기의 소년은 갖은 구박과 왕따, 줄 세우기 등 고초를 겪는다. 그는 새장 같은 작은 방에 갇히기도 한다. 소년의 유일한 친구는 어른이 되기를 멈춘 동네의 바보다. 누구나 그렇듯 소년은 용감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품는다.

◇국내 초청작 10편

▲아이모멘트의 ‘고 백 : 돌아가다’ (28-29일 오후 3시 30분)

앞으로 나갈 것인가, 뒤에 머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자들의 흔들림. 이 흔들림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제네릭 바피의 ‘야영’



예술 불꽃그룹 화랑의 ‘불의 노래’



KTO의 ‘시간의 향기’

불안하다. 그렇지만 흔들린다는 것은 적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우주마인드프로젝트의 ‘잡 온 론’ (28일 오후 7시, 29-30일 오후 5시)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이론을 체계화한 ‘국부론’을 썼다. 마르크스는 새로운 이상세계를 제시하는 ‘자본론’을 썼다. 영어 ‘Job on Loan’ (대출받은 직업)의 우리말 발음을 공연의 제목으로 채택한 것은 이론을 현실 세계에 끌어들이려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비주일씨어터 꽃의 ‘마시지사’ (29-30일 오후 3시·6시)

일반적으로 마사지는 몸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사지는 우리의 영혼을 마사지한다. 관객 일부가 하얀 종이로 전신마사지를 받는다. 그 결과 관객의 몸 형태 그대로 하얀 종이인간이 생겨난다. 이 종이인간들은 원형인 참여관객과 격정적인 드라마를 펼치고, 바람, 물, 불 등에 의해 소멸을 맞이한다. 인간의 나약함을 안아주고 삶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서커스 디램의 ‘날갯짓’ (29-30일 오후 4시·5시·30분) 누군가를 잃은 듯 소년의 명한 시선에 나비가 찾아온다. 소년은 나뭇가지에 실을 이어 채를 만들고 날아오르려는 나비를 잡으려 한다. 조심스럽던 손길이 점차 거세지고, 소년은 마침내 나비와 하나가 된다. 그런 황홀경도 잠시, 이별은 언제나 그렇듯 예고없이 찾아온다. 소년은 나비를 보내주기로 한다.

이밖에 ▲서커스창작집단 봉돌 ‘외봉인생’ (29-30일 오후 4시30분)은 시지프스의 운명처럼 붓을 오르는 이의 이야기를 하고, ▲일장일단 컴퍼니의 ‘줄로 하는 공연 ‘점’ (29-30일 오후 4시30분, 7시)은 줄을 통해 관객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건넨다. 또한 ▲류장현과 친구들은 ‘갓 잡아 올린 춤’ (29-30일 오후 5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선보인다.

▲극단 몸짱의 ‘충동’ (29-30일 오후 6시), ▲마린보이의 ‘고물수레’ (29일 오후 7시, 30일 오후 3시30분)는 각각 흔들리는 삶, 인간적인 인정을 공연한다. 마지막으로 ▲예술불꽃그룹 화랑은 ‘불의 노래’ (30일 밤 9시)를 통해 불을 업으로 삼는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자세한 일정은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홈페이지(http://www.fringeinternational.kr/)에서 확인 가능. 문의 062-670-575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주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아트쇼·아트마켓·음악회 담양 대담미술관 내일 ‘징검다리 축제’

2010년 개관 이후 ‘동네방네 미술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담양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징검다리 축제’를 진행한다.

28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대담미술관과 관방천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디어 아트쇼, 아트마켓, 푸드마켓 음악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미술관과 함께 향교리 주민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눈길을 끈다.

향교리 아트마켓과 푸드마켓에서는 향교리 아티스트의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티셔츠, 머그컵 등 아트 상품과 함께 지역민들의 손맛이 담긴 다양한 먹을거리도 판매한다.

오후 7시 열리는 음악회는 개그맨 전유성의 사회로 진행된다. 그룹 ‘기림과 뫌’의



이정선 밴드

윤영로가 무대를 장식하며 이정선 밴드가 출연해 ‘외로운 사람들’, ‘몽계구름’, ‘건널 수 없는 강’ 등을 부른다. 또 국악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해금연주자 강은일도 출연하며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과 송환규의 ‘미디어 아트쇼’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1-381-008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서화실 새단장...윤덕희 작품 전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가을을 맞아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을 새롭게 개편했다.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와 제1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호남의 전통 회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교체한 것.

이번 전시에서는 남도 수묵 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해남 윤씨 일가의 윤덕희의 작품을 선보인다.

윤덕희(1685-1766)는 공재 윤두서(1668-1715)의 장남으로 부친의 화업을 이어받았다. 그의 둘째아들 윤용 또한 화가의 길을 걸어, 윤씨 가문 3대가 문인화가로 일가를 이루는데 가교 역할을 했다.



윤덕희 ‘말그림’

전시 작품 ‘말그림(馬圖)’은 윤덕희는 소나무와 언덕을 배경으로 한 필의 말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진도 윤림산방에서 남도 문인화의 명맥을 잇는 소치 허련 등의 작품과 조선 후기 당상관을 지낸 장흥 출신 선비 임장원의 글씨도 감상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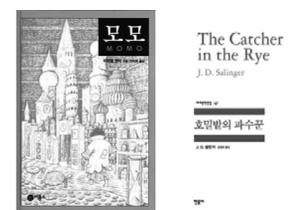
‘모모’ ‘호밀밭의 파수꾼’ 16년간 매주 한권 이상 팔려

16년 가까이 매주 한 권 이상 꾸준히 팔린 소설이 있어 화제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 바로 그것.

교보문고 팟캐스트 낭만서점에 따르면 이 두 소설은 인터넷교보문고에서 판매 집계 시작된 2002년 10월 이래 이달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팔렸다. 장장 829주로 15년 11개월의 기간이다.

다음으로 ‘오만과 편견’ (769주), ‘데미안’ (755주), ‘설국’ (752주) 동안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에서는 독자들에게 익숙한 고전들이 스테디셀러로 강세를 보였으며 시



의성과 무관한 소설이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 특히 조지오웰은 주 작품 ‘1984’ (722주), ‘동물농장’ (720주)이 꾸준히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